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1년 5월호

통권 제 213호



대안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5월 교우소식

새 가족

- ♣ 홍승숙 105구역, 종로구 봉익동 23번지
010-2766-2287

축하

- ♣ 결혼 - 김정덕군·안종인양(안인엽교우·
홍세진권사 장녀) 9일(토) 오후 1시, 안동교회
- ♣ 개업 - 윤정구교우·김 진간사, 25일(월)
대전시 동구 성남동 2동 1-38번지 2층
서울부부한의원 ☎ 042-383-7582

이 사

- ♣ 홍성혁·오윤정 집사·마포구 공덕동 삼성래미안
5차(아) 507동 1505호.

감 사

- ♣ 유왕재집사·이순옥권사 - 10일(주일) 점심식사
- ♣ 고 김충기장로 유족 - 24일(주일) 점심식사
- ♣ 신순예권사 - 부활절 계란 1,500개 기증.

별 세

- ☞ 고 김충기 장로, 2일별세 4일 장례.

전화번호 변경

은성순 010-2969-0941 황정희 019-272-1747
최묘희 010-4257-7081 남윤우 011-389-7913
권정옥 010-9960-7978 안경진 010-6495-8163
민기숙 010-5589-6305

기 타

사무간사 사임 - 김 진간사
(2006년 9월부터 4년 7개월 근무).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소그룹모임

5월 첫 주간부터 시작하여 6월 첫 주간까지 이루어질 소그룹모임의 준비가 한창이다. 이 기간 중에 모일 소그룹모임은 총6번으로써, 소그룹모임을 위하여 장소제공을 하는 장소제공자, 그리고 그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소그룹참여자들이 4-10명이 한 주간의 가장 적당한 요일과 시간에 모이게 된다. 현재 약 30여명의 장소제공자들이 자신의 집, 또는 사무실을 개방하였고 약 150여명의 교우들이 소그룹모임에 등록한 상태이다. 이번 소그룹모임을 통하여 안동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소그룹모임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한다.

3040만남의 시간

지난 24일(주일) 부활절음악 예배 후, 교육관

아동부실에서는 아동교우들 중에서 30대, 40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뜻 깊은 시간을 갖았다. 아동교회의 차세대 일꾼,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세대로서의 3040세대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교체할 수 있는 좋은 시작점이었다. 결혼하지 않은 싱글 3040,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의 자녀를 둔 3040, 신입서리집사 3040, 찬양대 3040, 등 아동교회의 다양한 부서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섬기는 모든 3040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었다. 약70여명의 3040은 같이 식사하고 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갖았다.

세례

고난주일 17일(주일)에는 그 동안 세례교육과 문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교회, 등에 대하여 공부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예비 세례자 10명이 세례를 받고 아동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세례자 - 김상일 김한무 이기열 이수정 이재영 이지원 조중수 홍윤표 황명실 황민수)

여기에 세례자들의 아름다운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까지 살면서 종교를 가지지 못했고 주님을 믿지 못하였는데, 좋은 기회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마음이 평안해짐과 제 인생에 대한 작은 것에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과 마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믿음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삶을 함께 할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나, 새로운 사람과 만남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나, 많은 부분이 시작인 이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시작하게 된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모든 진행과정에 있어서 주님과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함께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안동교호 유치원을 졸업하신 후,

결혼 전까지 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춘기, 군시절, 대학시절을 객지에서 보내면서부터 신앙을 소홀히 하였으나 평생을 기독교인 이란 것을 잊지 않았으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간절한 기도로 극복하고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감싸주셨다고 굳게 믿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므로 꼭 세례교인이 되어 더욱 신앙에 매진하겠습니다. 저희 자손에게도 대대로 신앙에 충실토록 더욱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최영애 교사

‘예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모두의 맘이 새 생명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영아부! 영아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이는 시간, 주일 아침 10시 반이 되면 여전도회실이 조금씩 아이들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다. 이시간이 되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영아부 선생님들은 조용히 기도를 마치고 아이들과 부모님을 반긴다. 그리고 이어 찬양이 시작되면 말을 시작한 아이들은 자기만의 음색으로 귀엽게 찬양을 따라하고, 엄마와 아빠 품에서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론 집중하고, 때론 다른 재밌는 놀이를 찾으며 감사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 이어 간식을 나눠주고 아이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조그마한 입으로 꿀꺽하는 모습이 앙증맞고 기쁜 맘으로 보통 넉넉히 남는 간식을 더 나눠준다. 또한 영아 예배 후 이어지는 어른 예배 시청은 영아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중요한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아이들은 그 사이 장난감과 놀이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즐거이 받으실 것을 우리 영아부 선생님들과 부모님은 믿고 또 아이들은 찬양함이 너무나 감사한 우리 영아부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김옥주 교사

성경암송을 시작으로 아동교회 유치부 어린이들

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기간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시 짊어지신 십자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도사님 말씀과 성경공부, 때론 영상을 보며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조금이나마 느끼고자 노력했습니다. 부활절 전날 아이들의 활동을 위해 몇몇 교사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들 바쁜 가운데 있지만 부활절이기에 기꺼이 기쁨마음으로 모여 사진작업을 시작하고 하는 동안 아이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색색의 종이컵에 병아리 모양으로 꾸미고 난뒤, 병아리의 작은 날개에는 종이컵 안에 든 은박지로 쌓인 달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절의 기쁨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라는 문구로 감사를 나타내 기도 하고 환하게 웃는 자신의 얼굴이나 예쁜 꽃과 나비로 예수님 부활하심의 기쁨을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쁘게 정성 드려 꾸민 달걀을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나누겠다는 아이들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40일 새벽기도를 마치며

류화숙 전도사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새벽기도회를 준비하며 아동부에서도 뜻 깊은 시간을 갖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새벽기도회 참여를 독려하고 매일 따로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다.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 첫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끝나고 6명의 아이들이 1층 기도실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40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 함께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의 향불을 피웠다. 어른들도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빠지기 쉬운 매일 새벽을 그 아이들은 엄마의 손에 이끌려 혹은 자기들끼리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냈다. 때론피곤함에 졸기도 하고 축 처진 어깨를 하며 예배당을 들어섰지만 기도의 시간만큼은 귀를 쫑긋 세우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주 짧게나마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포기하고도 싶었을 테고 하루쯤 빠지고도 싶었을 텐데 참 용케도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의 집에서

보냈다.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 어른 처럼 간절히 매달리지는 못했다. 처음엔 볼멘 소리도 하고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면서 몸을 비비 꼬아대던 녀석들이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집중하며 제법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역시 기도는

훈련임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아직 어린 나이에(4~6학년) 그들은 큰 언덕 하나를 넘어선 셈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더 큰 산들을 그 아이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고기특한 녀석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몽클하셨을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잠22:4) 6명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는다.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맘껏 칭찬해주고 싶다. 예주야, 동각야, 형준야, 재욱야, 도경야, 재훈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란다. 먼 곳에서 시간 나는 대로 달려 나와 같이 해준 건우, 건, 헤빈, 동희, 동균, 민구, 민주, 경빈, 지희야~~ 너희들의 헌신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줄 알기에 맘껏 축복하고 싶구나. 우리, 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멋진 아들딸들이 되자꾸나. 사랑한다.

중고등부 소식

최진오 전도사

4월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주일이 있었습니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던 만큼 모두에게 더 은혜로운 주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마찬가지로입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6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에 두 명의 친구들(황예진, 이정석)이 40일 개근을 하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신선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함을 보여준 두 친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친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개근을 하지 못했더라도,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모든 친구들이 우리 안동교회에서 신앙이 무럭 무럭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4월의 중고등부는

‘열공모드’였습니다. 쉽게 말해, 다가오는 중간고사로 인해 모두 공부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실새 없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안쓰럽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해야 하는 공부라면 즐기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너나 할 거 없이 주일날에도 학원에 가 보충수업을 받는다지만, 우리 친구들은 작년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출석이 곤두박질쳤지만, 이번에는 1,2명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주일날 만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외에 중고등부에 변화가 있었다면, 예배실의 환경 변화입니다. 그전까지는 동그랗게 앉아 예배를 드렸지만, 의자 위치를 바꿔 본당 좌석 배치와 같이 횡대로 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의자를 재배치하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하셨던 김종명 부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명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중고등부 오신 김경일 선생님이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소로 입소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교회소식

▶ 한식합동 추모예배



▶ 부활절 음악예배



▶ 세례식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장자노회 역할 못했다" 한국교회에 사죄

서울노회(노회장:최대준)가 지난 21일 무학교회(김창근목사 시무)에서 제1백80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노회 정책위원회(위원장:이수영)의 청원을 받아들여 제96회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치위원회 보고는 △제1백80회 노회기에 총대선출을 하지 않음 △노회의 총회총대 선출을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등의 노회 청원을 담고 있다. 또한 총회 건의로는 △금권선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새로운 부총회장 선거제도의 마련 및 시행 △한기총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 △'정책총회 사업노회'의 총회 기조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논의 끝에 정책위원회는 보고에 '지금의 한국교회가 비상사국상황에 있음을 감안한 판단'이라는 내용을 삽입했고, 이후 노회장이 찬반을 물어 안전이 통과됐다.

서울노회는 이날 '노회원 일동' 명의의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을 통해 "한기총 사태의 근본 원인이 금권선거에 있으며, 이는 교단 내 만연한 금권선거의 연장선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 절감하며 이에 책임지는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노회가 다른 노회들의 귀감이 되어 총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지 못한 점 △한기총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수수방관해 온 점 등을 부끄럽게 여기고 본교단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사죄하며 그 응분의 책임을 지려고 한다고 결의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결의와 관련, 노회 정책위원장 이수영목사는 "한국교회 전체의 위상이 추락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전제한 후, "장자노회

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자성하는 입장에서 총대 파송 자격이 없음을 표명하고 자숙

기회로 삼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상회비 납부와 교회자립사업 등 노회가 감당해야할 의무는 충실히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노회만 총대 파송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타노회로 파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그는 "앞으로 노회는 단계적으로 내부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10년간 서울노회가 부총회장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총대 미파송은 안될 말"

제96회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지 않기로 결의한 서울노회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에 근거해 협조와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강서교회에서 열린 제95회기 9차 임원회에서는 서울노회가 지난 21일 정기노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자책과 반성의 뜻으로 제96회 총회 총대를 파송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 헌법 정치 제84와 87조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임원회에서는 또 제96회 총회 개최 장소와 관련, 제8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강북제일교회를 재확인했다. 임원회에서는 평양노회로 하여금 강북제일교회와 협력해 제96회 총회가 은혜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지난 3월에 열린 제8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총회 장소를 재확인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지난 제95회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노회 상설 재판국 설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강남노회에 총회 헌법에 근거해 노회 상설 재판국 설치 권고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규칙부장이 제출한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 시행 청원건'도 허락했다. 이날 상정된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 시행건은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 작성시 경력란에 교회와 노회, 총회 사회봉사 경력 등을 각 10항목 이내로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중에 한석진목사의 후손이 한 목사의 유품인 병풍

을 총회에 기증한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유품기증식을 갖기로 했다. 한편 한국장로교북지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총회 한국장로교북지재단 감사에 오정수장으로 선임 청원건을 허락했으며 예수병원 이사장이 청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에 따라 연간 기부금의 수입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별도 조항을 삽입하는 정관 개정안도 허락했다.

한기총 파행, "장기화 조짐있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김용호직무대행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이광선, 길자연목사를 비롯해서 한기총 해체를 주장하는 단체 관계자들까지 만나겠다는 '청문일정'을 밝혔지만, 청문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던 길자연목사가 지난 21일로 잡혀있던 청문에 불참하며 직무대행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했다.

다만 길 목사측의 이만신목사를 비롯해서 이용규목사와 윤종관목사 이강평목사 등 4명이 김용호 직무대행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눠 청문 자체가 무산되는 일만큼은 피했다. 하지만 대리인이 직무대행을 만났다고 해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난 14일 길자연목사가 법원에 직무대행을 교체해 달라고 개입신청을 해 양측의 대립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길 목사는 청문 대신 같은 시각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이어진 기도회에서 홍재철목사는 명예회장단과 공동회장단, 상임위원단, 총무협의회 소속원들이 주축이 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기총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갖기로 하는 등 추후일정을 공개했다.

한편 당초 예정되어 있던 청문일정은 당사자들의 참석 여부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월 26일 기준으로) 명예회장단(29일), 한기총 탈퇴 및 해체 주장인사(5월 6일), 한기총 회원 교단 및 단체장(5월 13일)들에 대한 청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위기 처한 한국교회 부활 신앙 본받아야"

'2011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24일 오전 5시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목사 시무)에서 '부활,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기독교계 인사 등 서울지역 교인들 1만5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러졌다.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며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회개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연합예배는 △모임예전 △말씀예전 △물의예전 △성만찬예전 △파송예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신용목사(신길성결교회)는 "전 세계가 재해, 질병, 가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때에 교회마저 근심의 진앙(震央)이 됨을 자성하자"고 전했다. 이 목사는 이날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연합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됐듯이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타자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것"을 강조했다.

말씀 후 이어진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도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마지막에 드러진 한국인 혼혈아 황성연 어린이의 기도에서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과 부모 잃은 삼남매의 서러움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책으로 다가왔으며 교회협과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합의한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은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게 했다.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분단된지 66년이 됐지만 평화의 꿈은 요원하고 통일의 소망은 막막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민족공동체로 확장해 나가는 일을 너무 게을리 했습니다."

3부 '물의 예전'은 죄를 회개하고, 악과 불의와 억압을 거부하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것을 약속하는 순서였다. 집례자의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에 참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순권목사(본교단 증경총회장)와 장차남목사(합동 증경총회장)의 집례로 성만찬에 참례했으며 방지일목사(본교단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지난 2006년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매년 시청앞 광장에서 대형집회를 가져온 서울지역 부활절 연합예배는 올해 처음 교회에서 드려졌으며 진중하며 경건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만함이나 소란함도 없었고,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축사 등 예배 외 순서도 모두 생략된 것. 이날 헌금은 전액 노숙인 자활 지원 기금으로 사용키로 했다. 한편, 이날 6개 광역시를 비롯해 총 70여 지역에서 전국 각지의 교회 연합체들을 중심으로 연합예배가 드려졌다.

"정의와 평화의 실현, 여전히 중요"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는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나타내는 장인 동시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정의의 평화 창조 질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하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이영훈)와 독일개신교회(EKD)가 지난 1974년부터 진행해 온 협력과 대화 프로그램인 '한·독 교회협의회'가 지난 3월 25~31일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개최됐다. 특히 2013년 WCC 총회를 앞두고 '부산 총회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에는 교회협 총무 김영주 목사와 국제위원회 위원장 인명진목사(갈릴리교회)를 비롯해 양국 교회 관계자 35명이 참석했다. 2001년 한국 모임 이후 10년만에 열린 이번 9차 협의회에서는 WCC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국 교회의 이해와 기대를 나누고 시대 변화에 따른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국측에서는 먼저 채수일목사(한신대 총장)가 '1945년 이후 한국교회와 사회에 끼친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여'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김홍규 목사(내리감리교회)의 '한국 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판적 반성과 그 전망', 김광준신부(성공회 교무원장)의 'WCC 부산총회에 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 기대', 정해선국장의 '부산 총회 준비 공유' 등의 발제가 이어졌다. 또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드려진 폐회예배에서는 인명진목사가 WCC 제10차 총회 주제인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제하의 말씀을 통해 정의와 평화의 실현이 여전히 전세계 교회들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다.

"한국교회가 조부 기억하길"

장로교 최초 7인 목회자 중 한사람인 한석진목사의 유품이 기증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재 총회 사료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기증된 유품은 병풍 1점과 관련 서적 2권 등으로 미국에 거주중인 한석진목사의 손자 한화석씨(75세)가 총회 역사위원회(위원장:김원영)에 기증 의사를 밝혀오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19일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유품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장로교 최초 7인 목회자와 관련된 자료가 극히 드물다는 것을 감안할 때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장로교역사학회 회장 임희국교수(장신대)는 "한국장로교회 첫 목사님이자 평양장로회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의 유품이 기증됐다는 소식을 듣고 역사학자로서 무척 기뻐했다. 한석진목사님은 한국 토착교회 지도자로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라며 "내년에 총회 1백주년을 맞이하는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총회 사료관에 최초 7인 목회자의 유품이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후손들은 "한국교회가 조부인 한석진목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유품 일부를 기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석진목사는 지난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 서기로 선출될만큼 뛰어난 필체를 지녔던 것으로 전해지며 예수교회보 초대 사장을 역임한 것을 볼때 기록이나 자료수집에 일가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에 입수된 병풍은 한 목사가 직접 수집한 우표로 만들어져 있어 눈길을 끈다. 유품은 후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기증식을 가진 이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평북 의주 출생의 한석진목사(1868~1939)는 백홍준, 서상륜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에 입문했으며 1907년 목사안수를 받고 서울 안동교회, 마산 문창교회 담임, 제6회 총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회여,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자

"품종획일화는 동물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인위적인 위험한 발상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생산효율성을 위해 살아있는 동물을 규격화하는 현상이 강한데 이러한 경우 그 단일종에 치명적인 질병이 퍼지면 전세계의 먹거리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으로도 느꼈지만 동물 다음에는 사람 차례입니다."

지난 25일 '2011 지구의 날'을 기념해 '그리스도의 고난, 피조물의 탄식'을 주제로 열린 생태신학세미나에서 두번째로 발제한 박병상소장(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은 "육식을 먹을 때에는 자신이 먹는 그 고기가 어떻게 길러졌고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지 알고 먹어야 한다"고 현재 식품산업계와 소비자들을 향해 경고했다. 또한 박소장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댓가를 더 지불해서라도 생태 윤리적으로 키운 고기를 사 먹어야 한다"며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귀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부설기관인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주최로 동송교회(서정오 목사 시무)에서 열린 생태신학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신학자 및 목회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동물과 육식에 대한 생태신학적 성찰을 시도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후 토론을 인도한 노영상교수(장신대)는 "지금의 비생태적 공장형 축산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업주 개개인에게 그 상황을 맡겨서는 안되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교계에서도 기독교동물보호연대 같은 단체가 하루 속히 조직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피조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설화를 통해 보는 히브리 성서의 동물과 육식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제한 이영미교수(한신대)는 "성경에 나타난 동물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을 이롭게 지어주게 하는데 이는 동물을 인간의 먹이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창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과 동등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생태신학적 관점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제역 참사를 겪으며(김준권 농민)', '창조의 세계에서 본 동물의 신학적 의미(김형민교수)' 등의 발제가 있었으며 민경식교수, 장윤재교수 등이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이끌었다.

본교단 지원 받아 이동도서관 개설

본교단 사회봉사부와의 아이티 구호 협력 사업으로 10만달러를 지원받았던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정정섭)이 지난 3월 어린이를 위해 뽀로로 이동도서관을 개설했다. 기아대책은 지난 22일 본교단으로부터 10만 달러를 지원받아 만 5세부터 15세 아동들이 읽을 수 있는 프랑스어, 크레올어로 된 책 4천여 권을 비치한 뽀로로 이동도서관을 마련,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5톤 트럭에 기아대책 사이버대사 뽀로로 캐릭터로 길을 꾸민 이 도서관은 아이티 최대 지진 피해 지역 포트프랑스(Port-au-Prince), 간시에르(Ganthier) 지역을 주 3~5회 4시간씩 순회하며 어린이들에게 책, 교육 영상과 함께 비타민 등 영양제, 간식도 제공하고 있다. 현지 활동 중인 한성 기아봉사단원은 "1년치 학비인 500Glds(한화 2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고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도서관을 개설하게 되었다"며, "방문 지역과 순회 횟수를 순차적으로 늘려 더 많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아대책은 지난해 1월 아이티 지진참사 발생시 긴급구호팀을 보내, 의료구호와 함께 이재민 6만 8천여 명에게 쌀과 방수포 등 식량과 생필품을 나눠준 바 있다. 기아대책은 그후에도 한국인 기아봉사단원 5명을 파견, 간시에르(Ganthier)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재건, 이동 도서관 및 고아원 운영, 보건소 건립, 농업 기술 교육 등의 장기재건사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가

2011년 5월호 · 통권 제 213 호

발행처: 대인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황 영 태

편집인: 안 중 혁

안 재 훈

발행일: 2011년 5월 4일